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설명 요인

조금이^{1*}, 박현숙²

¹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²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The Study on Predictors of Motivation to Change in People with an Alcohol Dependence

Jo, Geum Yi^{1*} and Park, Hyun Sook²

¹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요 약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음주관련 특성과 심리사회적 및 영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며, 대상자는 2개의 도시에 소재한 5개 병원에 알코올의존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알코올의존자 209명이었다. 측정은 개인-음주관련 특성과 심리사회적 및 영적 변인을 포함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은 감사성향, 전문가 지지 및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었고, 이들 변인은 변화동기를 22.7% 설명하였다. 변화동기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감사성향이었고 다음은 전문가 지지였다. 결론적으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감사성향과 전문가 지지와 같은 강점과 자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motivation to change in people with an alcohol dependence. The participants were 209 peoples with alcohol dependenc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socio-demographics, alcohol drinking-related factors, and psychosocial-spiritual factors.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19.0 program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motivation to change in peoples with alcohol dependence were gratitude, professional support, and age at first admission. These alcohol drinking-related factors and psychosocial factors explained 22.7% of the variance in peoples with an alcohol depend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tivation to change in people with an alcohol dependents can be changed positively by increasing gratitude and professional support.

Key Words : Motivation, Self-esteem, Gratitude, Support, Spiritual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문화에서 술은 어떤 물질로써의 개념보다는 음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음주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음주문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1]. 18~64세 인구에 있어서 주요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30.0%이며, 이 중 알코올의존 및 남용

의 평생 유병률은 16.2%에 이르러[2],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평생 유병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알코올의존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며, 동일한 경과나 양상을 밟지 않고, 한 가지 뚜렷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쉽게 재발하기 때문에 알코올의존자와 그 가족 모두가 치료와 예후에 불신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3]. 일반적으로 알코올의존자는 자신의 음주문제를 부

본 논문은 2013년도 대구과학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Geum-Yi Jo(Taegu science Univ.)

Tel: +82-10-9872-1775 email: gyjo@tsu.ac.kr

Received October 10, 2013

Revised October 29, 2013

Accepted November 7, 2013

정하여 치료에 순응하지 못하고, 회복의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하는 등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다[4]. 변화동기는 개인이 변화해야 할 이유와 변화하고자 하는 열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의존자에 있어서 알코올 사용을 줄이려는 결정을 하거나, 치료 시작을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5]. 대부분 알코올중독자의 지나친 음주는 개인의 지식부족보다 단주하고자 하는 변화동기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의 단주를 돕기 위해서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6], 이를 통해 알코올중독자의 치료 참여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개입을 도울 수 있다[7].

최근 인간의 강점과 덕목을 강조하는 긍정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알코올의존자의 한계점보다는 긍정적 측면개발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도울 수 있다[1]. 알코올의존자에 대한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시각의 변화는 이들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로 이동시킴으로써 알코올의존자의 현존하는 잠재적 능력과 자원을 규명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것으로 개입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8].

지금까지 수행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입원 중인 알코올의존자를 대상으로 한 변화동기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4],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연구[9],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1],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10] 등이 있으나, 알코올의존자의 강점 파악과 자원 규명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코올의존자의 강점과 자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을 심리적, 사회적, 가족적, 영적 손상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과정[11]으로 보고,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및 영적 변인을 규명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혹은 회복 관련 선행연구에 기초로 두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내적 특성[1]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알코올의존자의 경우 알코올의존 이전에 자기존중감이 낮으면 재발 위험성이 높고[12], 일반인에 비해서 자아존중감이 낮으며[13],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알코올의존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14]가 있다. 감사성향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혜택이 다른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정서이며[15], 이 정서는 기쁨, 행복, 만족 등의 긍정적 정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분을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다양한 심리사회적, 신체적 및 지적 자원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16]. 일반적으로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일상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고, 낙담, 절망감, 무가치감 등의 부정적 정서가 적으며, 긍정적 결과에 대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1].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감사성향은 인간의 개인 내적 심리적 특성으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인간의 변화에 힘과 자원이 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알코올의존자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재발이 감소되고[3], 배우자, 자녀, 부모, 이성 친구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변화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17]를 감안한다면, 가족, 친구, 전문가 등의 지지가 알코올의존자의 사회적 자원으로 변화동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영성은 중독의 원인이나 중독 치료와 재활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18], 알코올의존자의 회복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19]. 영성은 알코올의존자의 회복능력과 관련된 요인인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1], 중독에 대한 인식 증가와 변화행동실천이라는 구체적인 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감사성향,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영적 요인으로 영성을 포함시키고, 개인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업, 결혼상태, 동거여부 및 월소득, 음주관련특성으로 최초 입원시기 연령, 입원횟수, 단주기간, 가족 중 알코올문제 여부 및 입원유형을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여,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알코올의존자의 강점 파악과 자원 규명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결과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알코올의존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에 따른 변화동기 정도는 어떠한가?
-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개 광역도시와 1개의 지역도시에 소재한 5개의 정신병원에 알코올의존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알코올의존자 209명이다. 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해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5, 예측요인 17개일 때 적절한 피험자 수는 208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응답률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는 총 220을 최종 목표 인원으로서 하여, 대상자 220명을 접촉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209명(95%)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에 앞서 알코올의존자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 설문지로 알코올의존자 5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예비조사 결과, 질문에 대해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수정사항, 추가설명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방적인 질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연구대상 병원의 병원장과 간호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하였으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은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결과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으며,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였고, 자료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2.4 연구 도구

2.4.1 변화동기

변화동기는 Miller와 Tonigan[21]이 문제 음주자의 변화동기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변화동기척도(stage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를 Chun[9]이 우리나라의 치료환경에 적합하게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9문항으로 인식(recognition), 실천(taking steps), 양가성(ambivalence)의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Jang[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다.

2.4.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2]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Park[23]이 변안·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2.4.3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Watkins 등(1998)이 개발하고 Thomas와 Watkins[24]이 개정한 감사측정도구(gratitude, resentment, and appreciation test; short form GRAT)를 Kim[25]이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감사, 사소한 감사, 타인에 대한 감사의 세 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6점에서 144점의 9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homas와 Watkins[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2.4.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26]이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를 Na(1998)가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지지, 친구지지 및 전문가 지지의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과 Lee[2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회적 지지가 Cronbach's $\alpha=.86$, 가족, 동료 및 전문가 지지가 각각 Cronbach's $\alpha=.82, .86, .73$ 이었다.

2.4.5 영성

영성은 Howden[28]이 개발한 영성척도(spirituality assessment scale; SAS)를 Oh, Chun과 So[29]가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28점에서 최고 168점으로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Oh, Chun과 So[2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이었다.

2.4.6 개인 및 음주 관련 특성

개인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업, 결혼상태, 동거여부, 월 소득 등과 음주관련특성으로 최초 입원시기 연령, 입원횟수, 단주기, 가족 중 알코올문제 여부, 입원유형 등을 측정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 작업을 거쳐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개인·음주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개인·음주관련 특성에 따른 변화동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치료자 지지) 및 영성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변화동기 설명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개인·음주관련 특성과 이에 따른 변화동기 정도

대상자의 개인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

[Table 1] Differences in Motivation to Chang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s and Alcohol Drinking-Related Factors for Subjects (N=209)

Variables	Categories	n(%)	Motivation to change	t or F	p
			(M±SD)		
Gender	Male	201(96.2%)	64.02±11.56	.965	.336
	Female	8(3.8%)	68.00± 6.72		
Age	Below 40	13(6.2%)	68.69± 7.29	2.001	.115
	Over 40~Below 50	68(32.5%)	65.68±12.36		
	Over 50~Below 60	88(42.2%)	63.66±10.31		
	Over 60	40(19.1%)	61.30±12.67		
Occupation	Have	103(49.3%)	64.36±11.55	.227	.821
	Haven't	106(50.7%)	64.00±11.36		
Marital status	Single	53(25.4%)	64.72±12.34	.152	.859
	Married	56(26.8%)	64.46±11.42		
	Others	100(47.8%)	63.73±11.02		
Monthly income (10,000 won)	Below 100 ^a	116(55.5%)	62.71±10.26	2.462	.047
	Over 100~Below 200 ^a	32(15.3%)	65.59±13.59		
	Over 100~Below 150 ^a	22(10.5%)	67.23± 9.74		
	Over 150~Below 200 ^a	13(6.2%)	67.92± 9.90		
	Over 250 ^a	26(12.5%)	68.54±13.99		
Age at first admission (year)	Below 30 ^a	11(5.3%)	69.09±12.22	2.823	.026
	Over 30~Below 40 ^b	50(23.9%)	66.38±11.80		
	Over 40~Below 50 ^c	78(37.3%)	63.99±11.12		
	Over 50~Below 60 ^d	41(19.6%)	64.49± 8.89		
	Over 60 ^e	29(13.9%)	58.59±12.93		
Frequency of admission (frequency)	1~2	87(41.6%)	63.28±11.93	.592	.555
	3~5	56(26.8%)	64.25±10.69		
	Over 6	66(31.6%)	65.30±11.42		
Duration after quitting drinking (month)	Below 1	56(26.8%)	61.80±10.92	1.763	.175
	Over 1~Below 6	81(38.8%)	64.67±11.03		
	Over 6	72(34.4%)	65.47±12.11		
Problem drinker in the family	Have	79(37.8%)	65.81±10.08	1.621	.107
	Haven't	130(62.2%)	63.18±12.10		
Type of admission	Voluntary admission	97(46.4%)	64.87±11.73	.843	.405
	Involuntary admission	112(53.6%)	63.56±11.18		

^a Scheffé test.

자가 201명(96.2%), 여자가 8명(3.8%)이었으며, 연령은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 88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68명(32.5%), 60세 이상이 40명(19.1%), 40세 미만이 13명(6.2%) 순이었다.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106명(50.7%)이었고, 가진 사람이 103명(49.3%)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이혼, 사별 등이 100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기혼이 56명(26.8%), 미혼이 53명(25.4%) 순이었다.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16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이 32명(15.3%), 250만원 이상이 26명(12.5%),

15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인 22명(10.3%), 2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미만인 13명(6.2%) 순이었다.

음주관련 특성에서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78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50명(23.9%),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 41명(19.6%), 60세 이상이 29명(13.9%), 30세 미만이 11명(5.3%) 순이었다. 입원횟수가 1~2회는 87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6회 이상은 66명(31.6%), 3~5회는 56명(26.8%) 순이었다. 단주기간이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이 81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은 72명(34.4%), 1개월 미만은 56명(26.8%) 순이었다. 가족 중 알코올문제가 없는 경우는 130명(62.2%), 있는 경우가 79명(37.8%)이었으며, 자의입원이 130명(62.2%), 타의입원이 112명(53.6%)이었다.

대상자의 개인·음주관련 특성에 따른 변화동기 정도는 월소득과 최초 입원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화동기는 월소득이 가장 높은 군이 가장 낮은 군에 비해 높았고($F=2.46, p=.047$), 첫 입원시기 연령은 30세 미만인 군이 60세 이상 군에 비해 높았다($F=2.82, p=.026$).

3.2 대상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 정도

대상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 정도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화동기 정도는 평균 64.18±11.43점(최소 31점, 최대 90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19점~95점에서 중간보다 높았고,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2.07±6.12점(최소 18점, 최대 49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10점~50점에서 중간보다 높았다. 감사성향 정도는 평균 92.58±16.06점(최소 54점, 최대 140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16~144점에서 중간보다 높았고,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39.36±7.95점(최소 19점, 최대 60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

[Table 2] Level of Motivation to Change and Psychosocial-Spiritual Factors of Subjects (N=209)

Variables	M±SD	Min.	Max.
Motivation to change	64.18±11.43	31	90
Self-esteem	32.07± 6.12	18	49
Gratitude	92.58±16.06	54	140
Social support	39.36± 7.95	19	60
Family support	13.12± 3.70	4	20
Peer support	12.23± 3.72	4	20
Professional support	14.01± 3.08	4	20
Spirituality	98.60±23.17	28	164

Min.=Minimum; Max.=Maximum.

위인 12~60점에서 중간보다 높았으며, 하부요인 중 전문가 지지가 평균 14.01±3.0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 지지가 평균 13.12±3.10점, 동료 지지가 평균 12.23±3.72점 순으로 나타났다. 영성 정도는 평균 98.60±23.17점(최소 28점, 최대 164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28~168점에서 중간보다 높았다.

3.3 대상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전문가 지지) 및 영성 간의 관계

대상자의 변화동기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r=.098, p<.160$), 감사성향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399, p<.001$).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나($r=.216, p=.002$), 친구 지지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r=.094, p=.177$), 치료자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고($r=.315, p<.001$), 영성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258, p<.001$),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 즉, 가족, 친구, 치료자 지지 및 영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감사성향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345, p<.001$). 가족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고($r=.396, p<.001$), 친구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나($r=.379, p<.001$), 치료자 지지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r=.104, p=.132$), 영성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541, p<.001$). 감사성향은 가족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고($r=.319, p<.001$), 친구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69, p=.014$), 치료자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Table 3] Correlations among Motivation to Change and Psychosocial-Spiritual Factors of Subjects (N=209)

Variables	Motivation to change	Self-esteem	Gratitude	Family support	Peer support	Professional support	Spirituality
	r (p)	r (p)	r (p)	r (p)	r (p)	r (p)	r (p)
Motivation to change	1.00						
Self-esteem	.098 (<.160)	1.00					
Gratitude	.399 (<.001)	.354 (<.001)	1.00				
Family support	.216 (.002)	.396 (<.001)	.319 (<.001)	1.00			
Peer support	.094 (.177)	.379 (<.001)	.169 (.014)	.671 (<.001)	1.00		
Professional support	.315 (<.001)	.104 (.132)	.255 (<.001)	.212 (.002)	.129 (.062)	1.00	
Spirituality	.258 (<.001)	.541 (<.001)	.522 (<.001)	.284 (<.001)	.228 (<.001)	.260 (<.001)	1.00

($r=.255, p<.001$), 영성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522, p<.001$). 영성은 가족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고($r=.284, p<.001$), 친구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28, p<.001$), 치료자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260, p<.001$).

3.4 대상자의 변화동기 설명 변인

대상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알코올관련 특성 중 변화동기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월소득과 최초 입원시기 연령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심리사회적, 영적 변인 중 감사성향, 가족 지지, 전문가 지지 및 영성이 변화동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서($r=.216 \sim .399, p=.002 \sim p<.001$), 예측변인으로서의 투입조건이 되었다. 이들 예측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01~.67로 .80 이상인 변인이 없어 예측변인 간에 독립적임이 확인되었고,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가 .728~.994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요인도 1.006~1.374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잔차 분석을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1.813으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차항의 정규 분포를 검정할 수 있어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음주관련 특성과 심리사회적, 영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음주관련 특성 중 월소득과 최초 입원시기 연령, 심리사회적, 영적 변인 중 감사성향, 가족 지지, 전문가 지지 및 영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감사성향, 전문가 지지 및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었다. 이들 변인은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22.7% 설명하였으며, 이 중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감사성향이었다(Table 4).

[Table 4] Predictors of Motivation to Change of Subjects (N=209)

Predictors	B	S.D.	β	t	p
Gratitude	.233	.045	.328	5.15	<.001
Professional support	.872	.236	.235	3.69	<.001
Age at first admission [†] d4	-2.753	1.222	-.139	2.25	.025

Adj. R²=22.70, F =20.06, p<.001

[†] Dummy variables(below 30=0, Over 60=d4)

4. 논 의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자의 개인·알코올관련 특성과 심리사회적 및 영적 변인 중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 변인을 파악하여,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변화동기 수준은 평균 64.18±11.43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50% 이상이 자의입원을 하여 입원치료 중인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수준이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입원한 알코올의존자 중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 온 집단에서 변화동기 수준이 높다고 한 Diclement et al[30]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서울, 경기지역 기관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Wool[9]의 연구 결과에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정도가 72.25±10.07 점임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어서, 추후 연구대상 지역을 보다 확대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2.01±6.12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1]에서도 알코올의존자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33.2±7.10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알코올의존자의 자아존중감은 동기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며[1],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14],[23],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변화동기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연구 간에 상이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반복되는 중독 과정을 거치면서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 자신을 묘사하는데 부정적인 특성을 더 잘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평가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알코올의존자의 자아존중감과 변화동기 간의 관련성에 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영성 정도는 평균 98.60±23.17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성이 입원 상황에서 치료자와의 관계성과 음주문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20]의 연구에서 112.85±23.84점임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어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한 결과, 주요 설명변인은 감사성향, 전문가 지지 및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변화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22.7%이었다. 이 중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감사성향이었고, 감사성향

이 높은 알코올의존자가 변화동기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알코올의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로 측정된 선행연구가 없었으므로 비교분석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감적 정서의 하나인 감사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받는 수혜자라고 강하게 인식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31], 알코올의존자에 있어서도 주변 의미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경험이 알코올 사용을 줄이려는 결정이나, 치료 시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 알코올의존자의 의미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감사의 정서적 반응을 매개로 하여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가 개인의 심리내적인 요인 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32], 알코올의존자의 감사성향 증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알코올의존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에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전문가 지지였는데,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알코올의존자들이 변화동기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의존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변화동기는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0]와 사회적 지지와 변화동기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의존자가 지각한 가족 지지는 변화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인 지지체계인 가족 지지가 치료의 중요한 변인이며, 알코올중독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하는데 주요 영향요인이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3]와는 상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대상자 표집과 관련된 것인지 추후 대상지역 확대를 통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부영역 중 치료자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대상자로 구성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결과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알코올의존자를 포함하여, 가족, 동료 및 전문가 지지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 낮을수록 변화동기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30세 미만인 군이 60세 이상 군에 비해 변화동기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변화동기가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와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 높을수록 병

식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4]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변화동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0]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상반한 결과는 최초 입원시기 연령과 변화동기 간에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는 알코올관련 특성 중 최초 입원시기 연령과 심리사회적, 영적 변인 중 감사성향과 전문가 지지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감사성향은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을 위해 알코올의존자의 감사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전문가 지지를 높여 변화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시에 이들의 최초 입원시기 연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을 규명하기 위해서 심리사회적, 영적 변인을 함께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알코올의존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결과 해석 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연구결과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심리사회적, 영적 변인을 포함해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해 볼 것을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음주관련 특성과 심리사회적 및 영적 변인을 포함하여,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감사성향이었으며,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변화동기가 높았다. 다음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전문가 지지였으며, 전문가 지지가 높을수록 변화동기가 높았다. 따라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사성향 증진과 전문가 지지를 높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알코올의존자 스스로 변화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간호실무적 차원의 의의는 임상현장에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으로 감사

성향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정책적 차원의 의의는 물질관련 중독의 하나인 알코올 의존자의 회복을 위한 변화동기와의 관계를 밝힌 양적 연구라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갖는다.

REFERENCES

- [1] J. S. Jang, Influence which self esteem and social support of alcohol dependents have on motivation tip chan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1.
- [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psychiatric illnesses in Korea, p322-328, 2006.
- [3] S. Y. Jeon, The impacts of stress and coping methods of alcoholics on the recurr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05.
- [4] S. J. Song, A study on effects of motivation enhancement to alcoholic in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2003.
- [5] Finney, J. W. & Moos, R. H., Entering treatment for alcohol abuse: A stress and coping model. *Addiction*, 90. pp. 1223 - 1240, 1995.
DOI: <http://dx.doi.org/10.1111/j.1360-0443.1995.tb01092.x>
- [6] Borsari, B. and Carey, K. B., Two brief alcohol interventions for mandated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9(3): 296-302, 2005.
DOI: <http://dx.doi.org/10.1037/0893-164X.19.3.296>
- [7] S. A. Park,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al analysis program on the motivation and strategy for change the hospitalization alcoholics, Inje University, 2007.
- [8] M. R. Han, Resilience, social support, spirituality in wives of alcohol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3.
- [9] Y. M. Chun, Assessing Alcohol Dependents' Motivation for Change: The Development study on the Korean version of 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4, pp. 207-223, 2005.
- [10] J. H. Woo, Correlation of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and motivation for change of alcoholic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40(4), pp. 116-145, 2012.
- [11] M. S. Yoon, A study on the marital group therapy for improving marital relationship of recovering alcoholic coupl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16, pp. 119-155, 2003.
- [12] S. J. A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concept on loneliness in alcohol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2006.
- [13] A. H. Lee, A study on factors for the effect of alcoholic on depression, Daegu University, 2006.
- [14] S. Y. Jeong, The relationship of Sex-roles identity,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atisfactory of life of the alcoholic women and general women, Dongshin University, 2003.
- [15]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2002.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82.1.112>
- [16] J. H. No, Why should I be thankful?: The effects of gratitude on well-being in individuals under the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05.
- [17] Martino, S., Collins, R., Ellickson, P., Schell, T., and McCaffrey, D., Socio-environm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s' alcohol outcome expectations: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Addiction*, 101: 971-983, 2006.
DOI: <http://dx.doi.org/10.1111/j.1360-0443.2006.01445.x>
- [18] Miller, G., *Learning the language of addiction counselling*. (3rd Ed.), NJ: Wiley, 2010.
- [19] Cashwell, C. S., Clarke, P. B., & Graves, E. G., Step by step: Avoiding spiritual bypass in 12-step, *Journal of Addictions & Offender Counselling*, 30(1), 37-48, 2009.
DOI: <http://dx.doi.org/10.1002/j.2161-1874.2009.tb00055.x>
- [20] S. H. Lee & Sung Man Shin, The influences the spirituality has on the rehabilitation of the addiction of the alcoholics who are in a therapeutic community using the DAYTOP model,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3-274, 2011.
- [21] Miller, w. R. and Tonogan, J. S., Assessing drinker's motivation for change: 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Socrates), *Journal of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0(2): 81-89, 1996.
- [22]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3] E. J. Park, A study on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eceing alcoholics' recove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10.
- [24] Thomas, M. & Watkins, P. C., Measuring the grateful trait: Development of the revised GRAT, Presentation at the 2003 Annual Convention of the 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Vancouver, B. C., 2003.
- [25] P. N. Kim, Influence of Gratitude perception on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Gratitude

- disposition and Gratitude treatm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8.
- [26]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1988.
DOI: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 [27] J. S. Shin, Y. B. Le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psychosocial well being of the unemploy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37, pp. 241-269, 1999.
- [28] Howden, J. W., Development &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spiritual 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92.
- [29] Pok Ja Oh, Hee Sook Chun, & Woi Sook So, Spiritual assessment scale: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Asian Oncology Nursing*, vol. 1, pp. 168-179, 2001.
- [30] Diciemete, C.C., Schlundt, B. S., and Gemmell, B.S., Readiness and stages of change in addiction treatment,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13(2): 103-119, 2004.
DOI: <http://dx.doi.org/10.1080/10550490490435777>
- [31]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A.,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12-127, 2002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82.1.112>
- [32] M. S. Jung, A study on the motivation for change of batter in prob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Sung University, 2009.
- [33] W. C. Kwon, A Study on Family Factors Affecting to Change Motives of Alcohol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11.
- [34] S. S. Kim, Relationship between insight leve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alcoholic pa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pp. 49-57, 2002.

조 금 이(Geum Yi Jo)

[정회원]



- 1994년 8월 ~ 2008년 12월 : 서대구 대동병원 간호과장
- 2008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학, 상담, 교육

박 현 숙(Hyun Sook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94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박사후과정)
- 1996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학,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교육